

# 후진성 드러내는 우리나라 '도서관' 통계

도서관수·장서량·사서수·도서구입비 등 모든 환경 열악

도서관은 한 나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상징된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은 누누이 지적돼왔다. 겉으로 드러나는 각종 통계수치에서 그러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역으로 선진 각국의 도서관 통계는 정보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시사해주는 바 크다. 우리의 도서관 현실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본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221개관, 시·도 소속으로 133개관, 사립이 16개관으로 모두 370개관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수는 미국 1만5346개관, 영국 5185개관, 프랑스 2740개관, 일본 2172개관에 비해 매우 적다.

1개 도서관당 평균 인구도 우리나라가 12만4천명으로 가장 많다. 미국은 1만6천명, 영국은 1만4천명, 프랑스는 2만명, 일본은 6만명이다. 인구와 도서관수의 관계로만 보자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두배나 열악한 것

이다. 정부에서는 1개관당 평균 인구 6만명을 목표로 2011년까지는 750개관의 도서관이 독서인구를 맞이하게 할 계획이다.

## 도서구입비 등 예산도 턱없이 낮아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서울의 경우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서울에 있는 도서관은 30개관. 하지만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 100만명당 도서관수는 뉴욕 15개관(총 211개관), 파리 8개관(총 72개관), 동경 13개관(총 367개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개관에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당 인구도 35만1433명이다. 이는 국내에서만 비교해도 열악하다. 전국 평균 도서관당 인구 13만917명의 2.7배나 되며 인구 1인당 장서수도 0.31권으로 전국 평균 0.34권보다 적다.

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수도 굉장히 적다. 핀란드가 7권, 미국과 영국이 2.7권, 캐나다 2.3권, 일본 1.5권, 프랑스 1.4권에 비해 한국은 1권도 되지 않는 0.34권이다. 정부는 2000년에 0.5권, 2011년 1권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는 확실히 돈이 없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은 열악하지만 한데 첨단정보센터로서의 기능까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한해 예산은 1647억여원이다. 이를 370개 공공도서관에 나누면 1개 공공도서관에 돌아가는 예산이 4억45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모두 도서구입에 쓰는 것은 아니다. 97년에는 겨우 173억원(도서관당 4700만원)만을 도서구입비로 썼을 뿐이다.

도서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 항목이다. 공공도서관의 현재 직원은 5095명으로 도서관당 평균 14명의 직원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정말 필요한 사서의 수는 1786명으로 그리 많지 않다. 전체 직원수에 비해 사서의 수가 3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97년도 예산 편성시 책정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1445억원), 자료비(899억원), 기타 잡비(131억원)의 순으로 되어 있다. 즉 전체 도서관 예산의 62%가 인건비, 10%가 자료비, 28%가 기타 비용으로 쓰이는 셈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 도서관의 97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122만 달러인데 비해 도서구입비는 75만 달러.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비율과는 정반대다.

## 학술출판물의 수요자로서 제기능 못해

모든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은 도서의 1차적 수요자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예산의 부족으로 도서관이 출판물의 수요자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일본의 도서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극히 열악하다. 일본에 비해 자료구입비(도서 및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가 절대비용에서 약 1/27, 1인당 도서

구입비에서 약 1/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경제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1인당 GDP(1인당 국내총생산)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우리나라에 비해 1인당 약 3배 가까이 도서구입비가 많은 실정이다.

영국은 한해 1천5백억원, 책 1권당 2만원으로 계산하면 우량도서를 한 해에 750만권씩 정부가 사준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영국 위원회'라는 국가발전기구가 91~92년 780억원어치의 도서를 구입해 출판계를 지원한다. 벨기에도 6백만권의 책을 정부가 산다.

음으로 양으로 출판계를 지원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의 관련부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문화관련 예산을 전체의 1%로 하겠다고 공약을 해왔다. 하지만 이 공약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 작은 예산 편성의 한천에 정부 총예산의 0.0014%, 문화부 예산의 0.15%가 출판분야에 투자된다. 미국은 주정부 예술기구 예산의 2% 이상을 '문학', 한 분야에 쓰고 있다.

한편 나라의 얼굴이랄 수 있는 국립도서관의 예산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둘을 합쳐도 1년 예산은 겨우 4백억원. 그런데 미국 의회도서관(95년)과 독일국립도서관(96년)은 각각 5천억원이 넘는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3천억원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2천억원대, 호주 국립도서관은 5백억원대이다. 한국의 출판량은 세계 10위권 이면서 도서관 예산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성수>

## 각국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수	총장서수(1000권)	관당 평균 장서수	관당 평균 인구수	인구1인당 책수
한국	370	17,557	48,000권	12만4천	0.38권
미국	15,346(약42배)	665,337(약38배)	44,000권	1만6천(12%)	2.7권(약7배)
영국	5,185(약14배)	156,700(약9배)	949,000권	1만4천(11%)	2.7권(약7배)
프랑스	2,740(약7배)	78,474(약4배)	54,000권	2만(17%)	1.4권(약4배)
일본	2,172(약6배)	185,234(약11배)	91,000권	6만(50%)	1.5권(약4배)

(자료: 도서관협회).

## 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비교

	한국	일본	비고(대일 비교)
인구	4599만명	1억2567만명	1:2.73(약 3배)
1인당 GDP	1만124달러	4만819달러	1:4.03(약4배)
공공도서관수	350개	2363개	1:6.75(약7배)
공공도서관 연간 증가책수	152억6657만권	4049억3431만권	1:2652(약27배)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1인당)	332원	3222원	(349억813만엔×환율 11.6) 1:9.70(약10배)

인구항목을 제외한 일본 통계는 모두 95년 기준이며, 한국의 인구 및 연간 증가책수는 97년 공공도서관수 및 자료구입비는 96년, 1인당 GNP는 95년 통계임(자료제공 출판연구소).